



JESUS CHRIST

The Special Grace of God
to Humanity

JOHN A. DANIEL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은혜
의
신이 인류에게

존
A. 다니엘 지음

저자의 다른 책들

1. 제출(권한)
하나님의 채널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2. 끝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경주 (자격 요건)

왕좌)
3. 장막은 ~의 그림자이다
그리스도
4. 말세의 영적 길
기도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언약 기도)

5. 언약

저작권은 존 A. 다니엘 목사에게 있습니다.

2001년 6월 ~

2003년 6월 초판 발행

본문에 인용한 성경 구절은 권위 있는 킹 제임스 성경(KJV)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 책의 어
떤 부분도 복제, 저장(복사, 전자화, 녹음 등)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주님의 뜻에 따라 무료로 배포됩니다.

봉납

이 책을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신비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메리 블레스스 다니엘, 티모시 존 다니엘, 벤자민 사무엘 다니엘, 데이비드 조셉 다니엘에게도 이 책을 바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축복의 비밀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형제자매들, 조슈아 N. 사무엘, 모세 P.에게도 이 책을 바칩니다.

아모스와 그의 가족, 제임스 다니엘, 조세핀 야구,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루스 은디디아마카 필립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제 아버지이신 고(故) 엠마누엘 은와포르 오조예케 이그보아누고를 기리며 바칩니다. 저는 전생에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991년 11월/12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는 몇몇 형제자매들과 함께 중보기도하며 시편 90편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 순종하여 주님께 아버지께서 회심하실 수 있도록 10년의 은혜를 더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거의 72세이셨기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고, 지옥에 가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3일, 아버지는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침례를 받으시며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방언을 말씀하시며 회심하셨습니다. 2001년 3월 3일, 즉 5개월 후(5개월은 은혜의 숫자입니다), 아버지는 81세가 넘는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특별하고 풍성한 은혜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용물

1. 성령께서 계시하신 내용
은혜와 진리의 원칙.
2. 법 또는 인간의 능력을 비교하기
우아함.
3.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4.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비추어 본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점.
5. 은혜가 율법의 무력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6. 세상과 대조되는 말씀.
7. 은혜에 대한 은혜란 무엇인가?
8.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냅니다.
9. 은혜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난.
10.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윗을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주셨다.

제 1 장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
은혜와 진리의 원칙

은혜(Grace)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Charis이며, Kharece로 발음됩니다. 이 단어는 받아들일 만한 것, 유익, 호의, 선물, 은혜, 기쁨, 관대함, 즐거움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Ronald F. Youngblood가 편집한 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Dictionary에 따르면, 은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가치나 공적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와 상관없이 베푸는 호의나 친절.

첼머스 사전에서 '원리'는 근원, 뿌리, 기원, 근본적 또는 주요 원인, 시작, 본질, 논증의 이론적 근거 또는 가정, 본능 또는 자연적 경향, 행동의 원천 등을 의미합니다. 첼머스 사전에서 '원리'의 의미 중 '근원'과 '시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은 말씀(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자 시작이시며, 여기에는 그분의 은혜도 포함됩니다. 주 하나님의 속성 또는 미덕 중 하나인 은혜는 자비, 사랑, 긍휼,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거저 주어지며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언약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거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분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마지막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물 중 첫 번째이자 머리로 삼으셨으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안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셨을 뿐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간에게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원리는 처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 물과 피, 사랑과 의,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말씀,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근원, 같은 통로에서 나오며,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은혜는 진리를 낳지, 진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진리도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정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가 지으신 사람을 두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셨으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창세기 2:7-22)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신 선한 생각은 창조 때 인간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으뜸이 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믿을 친 "만약"이라는 단어는 은혜 가운데 행해야 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계명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진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실 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내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세상이나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변함없는 충성을 다함으로써, 그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는 진리를 낳는다"라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려면, 그분 또한 아버지로부터 온 진리를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의지조차도 그분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없었으며, 이것이 그분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이곳은 인간의 거처였지만, 영적으로는 은혜가 진정으로 실천되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생명의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인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생명의 좋은 것들로 둘러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 악한 피조물들 가운데 살고 있음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 등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고,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기로 결정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며, 이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신의 이러한 은혜에 보답해야 할까요?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낳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로 따라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15-17)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에덴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덴동산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덴동산을 가꾼다는 것은 언약 백성인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동산은 언약 백성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은 언약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에덴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원수에게 넘어가지 않고 창조주와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에덴동산을 지키다는 것은 파수꾼이나 목자처럼 에덴동산에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교만이나 자기 의지를 먹지 않음으로써 죄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의 일은 역사가 말했듯이, 인간은 은혜에 따르는 진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였지만, 그 은혜가 낳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그 안에서 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경에서 기어 다니는 것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 악마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이 넘어갔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역사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나타난 모든 존재, 곧 은혜 안에서 온전히 행하려 했던 자들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영광)를 통한 인간과의 교제가 갑자기 단절되자, 하나님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최대 원수인 마귀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차마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채(죄 가운데) 걸어 다니며 더 큰 형벌에 노출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일시적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창세기 3:21)

하나님은 몇몇 동물을 죽이시고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의 가죽으로는 그들이 입을 옷을 만드셨습니다.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이 동물들을 희생시키심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에덴동산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 사용된 피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즉 죽음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로움이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누리도록 허락하셨지만, 은혜 안에서 살거나 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신자 90%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혜택을 아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에 은혜 안에서 살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설교와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린도후서 3:17).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심판 아래 두는 것입니다.

신성한 율법(진리)은 기독교인 대다수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 걷는 은혜가, 자신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율법(신성한 진리)을 낳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나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과 교제 속에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도록 자유롭게 드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체계를 통해 그분을 완전히 배제해 버린 것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계획이나 활동으로 그분을 가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정죄(즉 사망)를 제거하고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영혼)에 세워, 여러분이 책망 없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 흠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계명)을 주신 주된 목적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같은 죄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큼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즉 그분의 신성 또는 거룩함은 그 당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 안에는 그분의 진노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요구했고,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며, 언약을 어긴 자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두려운 요구를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심하게 훼손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사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며, 인간과 완전한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대가, 즉 형벌을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역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와 입을 말씀하신 것이라"(이사야 1:18-20).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음으로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달콤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 "와서 여호와와 함께 변론하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무엇을 변론하겠습니까? 자신이 죄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처소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은혜에 걸맞은 진리를 내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온전히 이 일에 동의했습니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울 은혜를 받자"(히브리서 3:16)라고 분명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회복이 시작된 이래로 이 부르심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신자들과 인류는 은혜의 작은 부스러기만 겨우 얻어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서 행하며,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기로 동의하는 성도들을 모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 쾌락, 욕망, 세속적인 것들 등을 희생하여 은혜와 함께 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내게로 모으라 (사편 50:5).

하나님께서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세상의 모든 제도를 버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행하기로 언약을 맺은 성도들만이 그분께로 모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하고 어디에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책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경주(보좌를 향한 자격)』를 참고하십시오. 심지어 여러 종교 종파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킨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불신하는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까지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서 행하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그들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가 보고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제 2 장

법이나 인간의 능력을 은혜와 비교하기

1장에서 은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율법이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두 개념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넬슨 신판 성경 사전(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Dictionary)에 따르면 율법은 사회를 다스리는 질서정연한 규칙과 규정 체계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육체의 자연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영원한 초월적 힘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율법은 속박을 초래하는 죽음의 사역으로도 간주됩니다.

뜰판에 새겨진 죽음의 직분조차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을 찾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 영광마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어찌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치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하물며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7-9)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즉 죽음의 사역이 영광스럽다면, 은혜, 즉 성령의 사역은 어찌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정치의 사역이라 불리고, 은혜는 의의 사역이라 불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모든 것을 상징하므로, 율법으로부터는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욱 많아지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왕 노릇 한 것과 같이, 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기까지 왕 노릇 하게 하려 함입니다.

(로마서 5:20-21)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율법, 인간의 업적, 즉 지도자의 지도 없이 육체를 통해 행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이 성경 구절은 신자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만약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와 진리가 아니며, 언제나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17)

은혜는 율법과 대조적으로 제시됩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율법은 배경으로 제시되어 대조를 이루며, 은혜와 진리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는 율법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와 진리의 배경이 되어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가 오히려 은혜와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도록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집은 사람이 짓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참으로 그의 온 성전에서 종으로서 충실히 일하여, 장차 말씀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3:3-5)

이 성경 구절은 성전을 지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매우 충실한 종으로 여겨졌던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은혜가 율법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겨져야 함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난 것은 은혜가 율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뛰어나다'는 것은 우월함을 의미하며, 중요성을 뛰어넘고, 탁월하며 우월함을 나타냅니다. '나타나다'는 것은 증거적이고, 드러나고, 의미 있고, 예고적이며, 시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뛰어나다'와 '나타나다'라는 표현은 은혜가 율법보다 명백하게 우월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은혜의 위대함을 보기 위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뛰어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 없듯이, 은혜와 율법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는 마치 창조주와 피조물을,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신성과 죄성을, 무한과 유한을, 영원한 것과 사라지는 것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남성.

모든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가 나는 산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옮겨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출애굽기 20:18).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타는 산이나 칠혹 같은 어둠과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와 말씀의 음성이 울려 퍼지니,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다시는 그 말씀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들은 명령된 것을 견딜 수 없었으니, 만일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어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서워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 떨노라 하니라

(히브리서 12:18-24)

이것은 율법(죽음의 집행)에 관한 이야기이며,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심판관과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산꼭대기에 오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짐승조차도 감히 산에 닿지 못했는데, 만약 닿았다면 돌에 맞거나 창에 찔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담대히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심한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 수많은 천사들, 총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와 함께, 하늘 예루살렘인 시온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대조는 은혜 사역에 실패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이나 인간적인 노력,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에서도 은혜와 진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누구든지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면 세상 체계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그분은 세상 체계의 일부가 아니셨고 지금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신 또한 세상 체계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세상 통치자가 오고 있는데, 그는 내 안에 아무 힘도 없다."(요한복음 14:30)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33).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가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마귀가 세운 세상의 체계에 속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속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정사, 교육, 종교 체계, 제사장직, 정부 업무, 사업 등 세상의 어떤 것에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전통과 완전히 분리되어 계셨기에 마귀는 그분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 체계 안에 있으면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체계의 모든 부분이 영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구주께서 부르신 '이 체제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거짓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 체제 안에 있지 않고,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아니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보잘것없는 초등 원리에 마음을 돌리셨나이까?

너희는 무엇에 얽매이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며 살피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수고를 헛되게 할까 두려워하는구나. (갈라디아서 4:9-11)

여기서 언급된 나약하고 비천한 요소들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아버지(성령)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왜 율법의 속박 아래서 날, 달, 절기, 연도를 지키려 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은 은혜 아래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행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류에게 은혜를 전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방종한 삶을 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은혜를 가르칠 때 진리도 함께 가르쳐야 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 은혜가 진리를 낳는 것이지, 진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위의 성경 구절은 은혜와 진리의 관계를 훨씬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는 불가분하기 때문에 함께 측정됩니다. 율법은 요구를 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이것을 가져오거나 이것을 행하라고 요구하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이루어줍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법은 은혜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은 장차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훈육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2-26)

이 성경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바울 형제를 통해 은혜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었으며,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훈육자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으로 물려받은 죄성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율법 아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율법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마태복음 23:2-3)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좌석'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들이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작 자신들은 법의 기본적인 부분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고, 죽은 후에 모두 낙원에 갔습니다. 진정으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전파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지 물을 것입니다. 바울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권세나 권위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모든 권능과 큰 권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알고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인격체가 될 수 없음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율법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였다면, 율법은 그들의 훈육자로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도,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도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진심으로 행하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불신앙 세상 사람들도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신 그분께로 인도될 것이며,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롬 3:20-21).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의와 의를 위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율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율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민수기 21:8-9)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과 같이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14-15).

놋쇠는 심판받은 죄를 상징하고, 불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들어 올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표징이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은혜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불뱀을 들어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상징하며, 이는 율법에서 비롯된 죄와 사망의 속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에게 다가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썼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저주받을 것이다” 하였음이라.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갈라디아서 3:10-11).

성경은 율법의 행위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저주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결코 의롭다 함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은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종교적 율법주의에 얽매인 전 세계 대다수의 신자들은 은혜 안에서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3 장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믿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피스테우오(Pisteuo)'이며, '피스테우오'라고 발음합니다. 이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믿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의 영적인 존재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은혜와 진리를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은혜와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으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형태로 10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은혜와 진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당신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은혜와 진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셈'이라는 이름은 '수치'로 발음되며, 영광, 권위, 성품, 명성, 평판, 소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님에 대한 영광, 권위, 성품, 명성, 소문에 당신의 영적인 존재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그 답을 제시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29)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하신 일은 세상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11-12).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8:24)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없애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인 그들에게는 이것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습에 따라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도살하는 어린양을 죄를 없애줄 존재로 여기고 크게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12:46-48).

세상은 어둠과 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그분을 은혜와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곧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29)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행해야 할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었지만 은혜 아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완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며, 단지 예수님이라는 완성된 은혜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31)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4)

이 장의 첫 네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렇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그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골로새서 1:16 참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책은 요한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빛과 경건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영생에 이르도록 다스리지만 모세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범했다고 확신시켜 주겠느냐?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8:46)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를 초월하셨고, 사랑이십니다.

그는 흠 없이 세상을 걸어갔고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분은 어떤 죄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17 참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손에게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말입니다.

(로마서 4:14-16)

바울이 믿음에 대해 썼을 때, 그는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곧 의에 대한 믿음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쓴 믿음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은혜와 진리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안에서 행했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임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은혜의 근거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4:11-12)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믿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기로 동의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백지수표, 즉 무제한적인 수표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중재자가 없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중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중보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서실 것이며,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아버지께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중재자로서 중보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가 아버지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항상 기록하고 흠 없고 책망할 데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골로새서 1:22 참조).

너희가 서로 존경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경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5:44)

주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일꾼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거나 영광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의 태도는 언제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게 할 것이며, 이는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온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영광이나 존귀함도 스스로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회복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완성된 사역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종류의 자기 노력, 인간적인 성취, 능력 또는 업적을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둠과 눈먼 상태에 머물게 되고, 죄가 당신 곁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는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기록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5:46-47)

이 구절에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며, 주님께서는 율법이 참으로 성실히 순종하는 자를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신 그분께로 인도하는 훈육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모세의 기록에서 유대인들이 신명기 18장 18-1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예언적으로 들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신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할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3-4).

이 세상의 신은 자신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즉,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질 것입니다. 이는 그분을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멸망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 회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네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30-31)

오직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에만 구원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해방될 수 있는 다른 길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으로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바로 그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보다 먼저 다른 신이 없었고 나보다 후에 다른 신이 없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3:10).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증인과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믿으며, 그분이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심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은혜와 진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은혜 이전에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고, 은혜 이후에는 인간에게 의롭다 함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막 9:42)

'모욕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스칸달리조'(skandalizo)인데, 이는 스캔들을 일으키다, 함정에 빠뜨리다, 넘어뜨리다, 비틀거리게 하다, 죄나 배교, 불쾌감으로 유혹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모욕하다'의 의미를 밝힌 것은, 주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믿는 사람들을 죄로 유혹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공격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함 받은 귀한 모퉁잇돌을 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7)

성경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퉁잇돌이시며, 아버지의 택하신 자이시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시며, 시온에 세워진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십니다. 세상 체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행한다면,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한다는 말은 혼란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신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넘어지고, 택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 4 장

사마리아인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
여자와 니고데모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

니고데모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책 3장에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2)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으며, 훨씬 후에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몰약과 알로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바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도 니고데모였습니다(요한복음 19:38-42 참조).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압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본다고 말한 것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볼 수 있었다면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폐지될 율법의 끝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너울을 쓴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너울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설 때에는 그 휘장이 벗겨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13-16)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마음에 이 휘장을 쓰고 있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휘장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믿는 순간, 모든 악령은 사라집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얼굴에 베일을 쓴 것과 같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임을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롬 3:19-20)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롬 5:12-13).

율법은 누구도 의롭다고 여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세상에 주어진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는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 또한 죄에 대한 형벌로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 얼굴을 가리고 있던 회장이 벗겨져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교파의 율법이나 세상 체제의 율법에 얽매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역자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죄의 죄책감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율법에 대한 은혜와 진리의 유일한 해답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이며,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미래의 시대입니다. 또한 그것은 축복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에덴동산은 악이 완전히 극복된 곳이며, 그곳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행복과 평화와 기쁨만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인 모습을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레위기 20:10)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네 말이 참되도다 (요한복음 4:17-18)

레위기 이 장과 절을 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사실, 만약 그녀가 유대인이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지 않았고,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여인을 대하셨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남편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이혼이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혼 사실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수(은혜)를 주셨습니다. 생수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입니다. 그 여인은 인간적으로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적인 상태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섯 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사실, 자신이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이가 들어 거듭남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지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날수록 예수님의 단순함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음료를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4:9).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족한 이해력으로 예수님을 율법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생수를 주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계시가 니고데모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인 니고데모는 인간의 공로로 얻는 생명이라는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생명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율법주의(행위)와 자기 의의 인간의 공로 없이 은혜로 얻는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생수로 얻는 영생, 그리고 마음의 모든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과는 정반대입니다. 비록 그 여인의 지성은 생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성이 그레이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선물의 값없는 자유로움, 영원히 만족을 주는 변함없는 능력, 그리고 내면에서 영생을 맺게 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행위(인간의 능력)였기에 인간적인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진리를 지적으로나 행위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지성(즉, 마음의 문제)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롬 10:10).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의존을 인정함으로써 은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요한복음 4:19)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필요했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생수를 갈망했고, 그것을 찾아 헤맸으며, 그것을 얻기 위한 조건 또한 받아들였다.

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십일조와 손으로 드리는 거제물과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귀한 서원물을 거기에 가져오라. 너희와 너희 아들딸과 남종과 여종과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라. 이는 레위 사람이 너희와 함께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번제물을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네 지파 가운데 택하신 곳에서 번제물을 드리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라 (신명기 12:11-14).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특정한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셨고, 율법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은혜의 성령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큰 미혹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이 율법 아래에서 주신 계명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큰 속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지키고, 한 가지라도 어기면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법을 어기는 자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그 시간이 오면 너희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할 것이다. —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압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참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20-23)

예수님께서서는 때가 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 이스라엘에 발을 디디신 순간부터 성전 예배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제물을 바쳐야 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으며,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인 예배와 유대인만이 참된 하나님 예배자라는 생각을 종식시키고,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에게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리라는 사실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산이나 예루살렘(예루살렘은 조직적으로 정해진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상징함)에 가는 자들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 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4:29)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녀가 믿도록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위대함은 결코 빛나가지 않으며, 적절한 때에 원하는 바를 이루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서 평판이 좋은 덕스러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덕스러운 여인은 죄 많은 이 여인처럼 평판이 나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평판이 매우 나빴고, 아무도 그녀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지냈고, 물을 길으러 나갈 때도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오지 않는 한낮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을 때, 그녀는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동족 여자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도시의 남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좋지 않은 평판 덕분에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은 세상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들, 또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기 어렵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공로를 너무나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그들에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니,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

(요한복음 4:40)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들과 함께 이틀 동안 머무르신 것은 은혜 시대의 2천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던 몇몇 서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이처럼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막 2:6-7).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의 말에 얽매이게 할지 의논하였다. (마태복음 22:15)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악마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일 때마다 그들의 의도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제 무능력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가진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물(하나님의 말씀)과 성령(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날 때에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은혜가 율법의 무력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양 시장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 그 행각에는 눈먼 자, 절뚝거리는 자, 마비된 자 등 병약한 사람들이 많이 누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복음 5:2-3).

무력함을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아스테네오(astheneo)로, 허약함, 병듦, 병들다,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을 뜻하며, 다섯 개의 현관은 숫자 5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은혜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있는 병든 사람들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의 실패,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를 보여주지 못하는 율법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할 힘이 부족했고,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에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으니, 물이 휘저어진 후에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병이 나았더라.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들어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는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5:4-7)

그 병자는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숫자 38은 하나님의 수학적 체계에서 의를 의미하지만, 그 병자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나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기에

그 당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즉 천사가 물을 휘저어 드릴 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 그는 3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적인 힘을 낭비했습니다. "주님, 물이 휘저어질 때 저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나를 따라갈 목사나 지도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너무나 체계화하여, 거듭난 사람은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따라와 줄 형제자매가 배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널리 알려진 기독교계에 부도덕, 방종,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이 만연한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단 내 형제들의 지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형제들이나 교단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신앙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젊은 회심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멘토가 더 이상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신앙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소개받고, 강요받지 않고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되었다면,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의로 영접하고, 영과 진리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으니 너희는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느니라 이것은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대로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요일서 2:27)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의 은혜를 따라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무력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주었을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며 오랜 세월을 허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 기름부음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기로 동의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하실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실패를 용인하셨고, 이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데스바르네아에서 출발하여 제레드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이 걸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군대에서 모든 군사가 전멸할 때까지니라 (신명기 2:14).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거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능력을 믿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 그리고 의로움에 너무나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의로움이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지 못할 때까지 모든 인적 자원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또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은혜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수많은 교파적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서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라 (요한복음 5:10).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출애굽기 19:4)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이 행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가 그 사람을 고쳤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안식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한 행하심보다 자신들의 율법과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교파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율법주의, 즉 율법이 은혜를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행하는 순간,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나았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 다녔으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요한복음 5:9)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입니다. 율법이 38년 동안 무력하여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단 몇 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안식일을 매우 소중히 여기던 유대인들은 이에 크게 분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를 어떻게 처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를 감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여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민수기 15:32-36)

율법의 무력함은 너무나 커서 율법 아래에서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병자가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병자가 치유된 후에도 침상을 옮기거나 일어나지 못하게 강요했고, 심지어 예수님께 불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16)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셨더라도 그들의 율법에 대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주의가 은혜에 대해 내리는 최종적인 해답이 죽음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과 죽음의 개입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10)

이는 작품과 인간의 노력 속에 나타나는 죽음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단 하나의 법을 어기면 모든 법에서 실패하게 되며, 이는 법이 그 법을 믿는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17)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은혜 아래에서는 안식일에 행하신 일을 옹호하지 않으셨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옹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는 마태복음 12장 10-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무력함과 은혜의 구원 능력은 예수님과 간음하다 잡힌 여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의 만남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으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며 마치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하셨다. 그들이 계속해서 묻자, 예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로 한 사람씩 나가 버렸다. 이제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 (요한복음 8:3-11).

율법에 따르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녀를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죄를 없애셨으므로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 여자를 보았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여자를 보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 자체가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전하는 진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를 제시하셨고, 그들은 진리를 거부할 수 없어 모두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5-6)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그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인 시카르에 이르셨는데,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였습니다. (요한복음 4:3-5)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성읍에 가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통해 율법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교류가 없었고, 둘째, 제자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계시를 통해 제자들이 은혜를 상징하시는 예수와 함께 사마리아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자들이 은혜와 진리 아래 행할 때, 어떤 정죄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갈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의 영을 받아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무능력 때문에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요구했지만, 은혜는 율법의 무능력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효과적으로 증거했고 흠이 없었습니다.

보라, 가나안 여인이 그 지역에서 나와 예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다윗의 자손 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롭소! 하시니라. 예수께서 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간청하여 이르되, 저 여자를 보내소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부르짖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이 이르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매 그 딸이 그 시간부터 나왔더라 (마태복음 15:22-28).

그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유대인인 척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의 혈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옹호하시고 동시에 그녀의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즉시 회개하고 은혜로 구했고, 은혜는 그녀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아무리 간청하고 끈질기게 구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녀는 은혜 아래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는 율법이 자비롭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 거의 삼 년 반 동안, 이 이방인 여인은 율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실패한 곳에서 은혜는 항상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율법을 통해 마음속 소원을 얻으려고 속임수를 썼고, 실패했을 때 은혜로 향했습니다.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6 장

세상과 대조되는 단어

단어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이나 생각, 관념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궁극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1).

이 몇 마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생명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그리스어 코스모스(Kosmos)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여러 사물이나 사건 등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거나 목록에 나열되어 첫째, 둘째, 셋째 등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하신 질서와 일치하도록 이 땅에 기능하도록 만드신 조직적인 체계 또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향해 이처럼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마태복음 6:9-10)라는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도하는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에덴동산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던 그분의 통치 체계입니다. 이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권능 또는 권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피조물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므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은 바로 그분의 삶의 방식이며, 천상의 존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와 땅 위의 다른 모든 피조물이 천상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대조적으로 살펴보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작동하는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히브리서 11:3).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은혜)에서 타락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세상에서 작동하는 체계는 사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미치게 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완전히 잊게 하려는 헛된 노력으로, 인류 전체,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에 바빌론의 신비의 영을 주입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신비'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류나 창조의 기원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무스테리온(musterion)'이며, 비밀이나 불가사의를 의미합니다(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지켜야 하는 침묵의 개념을 통해). 반면에 '바빌론'은 '혼란'을 뜻하는 바벨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바빌론의 신비'는 마음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혼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마라고 불립니다.)

그 체제(신비의 바빌론)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며, 설령 알게 되더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 수 없는 강제적인 입문 의식으로 그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의 바빌론이라 불리는 이 조직적인 체제의 목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인간이나 피조물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보기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본보기를 따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바빌론의 영이 쿠스(에티오피아) 출신의 위대한 사냥꾼 니므롯 시대에 악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영이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겠습니까? 아벨의 제물이 자신의 제물보다 하나님께 더 좋고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천사들을 움직여 천국의 아름다움과 모든 기쁨을 잊게 하고, 사람의 딸들을 탐하게 하여 결혼하고 세상에 거인들을 낳게 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니므롯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므롯 시대에 이르러 그것은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체계로 발전했고, 사람들이 흠여지고 여러 언어가 생겨난 후에도 계속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체계이며, 이는 인간의 타락 이후 사탄이 세운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물질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3, 10-11)

그분은 온 인류가 따르고 있는 기존 체계의 일부가 아니었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은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제자들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 그 체계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계셨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요한복음 16:33) .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 마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16)

내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으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14)

주님께서 세상 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거의 99%가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는 세상 제도 안에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환난과 영적인 괴로움뿐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들을 데려가실 때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그리고 인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세상 제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은 세상 제도의 일부가 아니셨고, 결코 세상 제도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세상 제도와 그 제도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1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내가 너희보다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과 그 체계는 더 높은 존재, 섭리, 전능하신 분, 최초의 길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세상과 그 체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덕적 문제, 심지어 법의 모든 도덕적 기준까지도 이해합니다. 세상 또한 의를 추구하고 자신의 행위와 업적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믿음은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공로를 위한 여지를 남겨둡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면서도 여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가 인간에게서 충분함과 공로를 찾을 때 비로소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 그리고 이 체계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 부패한 체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유능한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고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3:6)

문자로 된 말씀은 사람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자로 된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찾으려 할 때,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그러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불의로 붙잡고 있습니다. (롬 1:16-18)

의로운 자는 은혜로 살지만, 사람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로움과 심판을 요구하는 율법을 발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읽는 율법이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18)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의미하며, 세상 체계는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율법(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대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은혜와 진리의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세상 체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신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체제에서 벗어나도록 촉구받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명시된 원칙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 삶의 주님이 아닙니다. 세상과 그 체제가 행하는 종교는 예수님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이유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영접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고도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로마서 4:4-5)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행위일 뿐입니다. 세상과 그 체계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무엇이든 얻으려면 노력하거나 애써야 한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었고, 당신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7:6)

은혜와 진리를 받고 세상과 그 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 주신 백성이며, 그들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염소는 뱀이나 송아지를 낳을 수 없고, 반드시 암염소나 수염소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그 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 진리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체계의 일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9)

많은 이들이 놀라워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과 그 체제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그 체제 안에 계속 머무른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도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으며, 보냄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어찌 아름다운가! (로마서 10:13-15)

'부르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피칼레오마이(epikaleomai)이며, 발음은 에피칼레오마이(ep-ee-kal-ehom-ahee)입니다. 이 단어는 '권리를 부여하다', '간청하다'(도움, 예배, 증언, 결정 등을 위해), '호소하다', '부르다', '칭찬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롬맨 사전에 따르면, '간청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 원칙 또는 이론을 사용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 특정한 생각, 이미지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 특히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에서 '부르다'라는 단어의 완전한 의미를 밝히는 데 시간을 들인 이유는 세상과 그 체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믿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한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하는 일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 예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처한 체제보다 더 강력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체제가 나쁘고 매우 부패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완악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자나 사역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세상은 어둠과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이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적으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세상에 깊이 파묻혀 세상의 체계를 삶의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체제 안에 있는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함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의 빛을 보기 어렵게, 아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하나님의 종들과 신자들이 세상 체제에 관여하는 것을 아무리 정당화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체제는 부패했고, 그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패했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의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나 목회자들은 가서 설교하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제 7 장

은혜에 대한 은혜란 무엇인가?

이 책의 서두에서 저는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리스어로 '카리스(Charis)'라고 적고, 영어로 '받아들일 만한', '혜택', '호의', '선물', '기쁨', '관대함', '즐거움'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넬슨 신판 성경 사전(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Dictionary)의 총괄 편집자인 로널드 F. 영블러드(Ronald F. Youngblood)가 은혜를 '호의' 또는 '친절'이라고 정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의 가치나 공로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과 상관없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유익, 친절 등을 받았고, 이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이나 영역에서도 은혜, 호의, 선물, 유익, 친절 등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가 낳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그분의 원칙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호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호의, 유익, 친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사역자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큰 확신과 담대함을 보이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은 그의 시편에서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와 그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도 여호와와 그의 것이니라 (시편 24:1).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성경 말씀, 곧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은혜와 진리의 종인 주님의 소유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또한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잠언 28:1)

우리에게 이토록 담대함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궤(임재)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와 권력에 맞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와 권력은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율법과 성령을 비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비교하려 했던 것은 율법과 은혜였습니다. 즉, 은혜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함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라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니,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롬 8:17).

공동 상속인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수글레로노모스(sugkleronomos)이며, 이는 공동 상속인, 즉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 함께 상속인, 공동 상속인, 함께 상속인, 함께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롱먼 사전(Longmans Dictionary)에 따르면 상속인은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직위를 받을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이자 물리적인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셋째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과 함께 창조하신 첫 번째이자 영적인 땅의 일부였으며, 그 땅 역시 공허하고 형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을 다스릴 법적 권리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주 예수)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언약의 형제자매인 우리에게 땅을 다스릴 법적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롱 성경 사전에서 공동 상속자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로 묘사한 것처럼, 우리도 공동 상속자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자로서 공동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재산과 소유권을 받을 법적인 권리도 갖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담대함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어떤 권위에도 맞설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은혜와 진리의 일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 체계에서 분리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일꾼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 체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상반되며,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세상 체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항상 당신을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한 이가 이시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높으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그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다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느니라 (요한 복음 1:14-16)

요한은 성령의 감화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이 풍성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이 풍성한 은혜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당신을 붙들어 주고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하시니,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12:9)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러한 능력 중 일부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 부족 때문입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그러한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13)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시하심으로 생겨나며, 우리가 새로운 계시 안에서 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게 되면, 새로운 계시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안정시키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10)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화된 공급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은혜 위에 은혜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죄인을 구원하고 의롭다고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변화무쌍한 상태를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준 율법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며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빛)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이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순수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괴로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2:27-28)

이곳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나는 이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했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은혜

회복이란 단순히 어떤 것을 원래 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한 은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인류와 다른 피조물들을 그들의 죄를 전가하지 않고 창조 당시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8)

19).

회복의 은혜는 죄를 전가하거나 죄를 몇 번 지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사람의 행적은 마치 이전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역과 메시지를 은혜 안에서 행하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을 어떤 죄도 전가하거나 더 이상의 형벌을 내리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너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으니 곧 그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 1:7).

이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지은 죄조차도 내가 가진 은혜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용서받으며, 이 은혜는 인간을 온전한 인성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중생을 위한 은혜

중생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남 또는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중생은 사람의 죄성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중생은 죄악된 육신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탄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계명은 자기중심적인 성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성품으로 변화하라는 호소이며, 이는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마음의 깨달음, 의지의 변화, 그리고 새롭게 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의 필요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가 물려받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은혜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중생을 일으키시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죄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5-6)

이것은 거듭남 또는 중생을 가져오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생의 은혜, 즉 영생의 선물이며,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거듭남) 드러나며, 이는 참된 회개인 회심의 은혜로 인도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참된 개혁의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나아가게 되었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롬 5:1-2).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귀가 무엇을 하든, 나는 그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내게 베풀어주신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10).

하나님의 일꾼들과 은혜와 진리의 종들은 자신들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깨닫고 육신을 자랑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말씀 사역에 아무리 힘쓰고 기적을 행하더라도, 우리를 지탱하고 굳건히 서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육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자랑하고 싶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육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의 일꾼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가 주시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역 사무실을 위한 은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엡 4:7, 11-12)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받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그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직분을 위한 은혜에 있어서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직분에 따라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목사, 교사, 전도자는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더 높은 계시와 기름부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지키기 위해 시련을 견뎌낼 용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 직분을 덜 매력적으로 여겨 감히 그 직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재정적 이득과 인기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직분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가 각기 다르니 예언하는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에 힘쓰고,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권면하는 은사는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주는 은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다스리는 은사는 부지런히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롬 12:6-8)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사람을 본받아 사역을 수행하려 한다면,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고, 이는 당신의 소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책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총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은 후 부목사나 전도사로 임명될 뿐, 초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 직분으로 파송하시기를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사도행전 1:4-8, 13:1-3 참조). 예를 들어, 저는 주님께 구별되어 사도 직분을 훈련받았고, 지금은 헌신적인 남녀와 아이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를 목양하는 사역에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훈련을 마친 후에도 저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제 사역 직분이 나타나기를, 또는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소명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꼬박 기다렸고, 마침내 1995년 4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셔서 엔구(Enugu)를 떠나 라고스(Lagos)로 가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경험했고, 진정한 증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의 파송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나섰다면, 지금쯤 얼마나 큰 속임수와 수치심에 빠져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신 분이 아니시기에 결코 함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파송하시면, 그분은 당신을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름부음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에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빙성이 더해질 것입니다.

제 8 장

은혜는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낸다.
인간의 일 또는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처음 계획하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창조 당시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의 형태로 은혜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형태로 죽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신과 온 창조물을 두려움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주 예수님을 통해 인류에게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거부한 죄에 대한 형벌, 즉 죽음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는 그럴 은혜가 없었기에 허사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와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께서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례에 따라 각각 두세 통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매 그들이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또 이르시되 이제 물을 길어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가라 하시매 그들이 가져갔다. 잔치 책임자가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을 길어온 종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사람들이 술을 충분히 마신 후에는 더 나쁜 것을 내놓으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2:1-10)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즉, 인간의 행위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육체의 행위(율법)가 아니라 성령(포도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 행위, 힘의 한계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득한 광천수에 속한 무기물인 물을 생명의 영역에 속한 유기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물은 바위처럼 무기물이지만, 포도주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은총을 상징하는 유기적(생명체) 물질이다.

이 미네랄워터의 기적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재생 또는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 6을 의미하며, 성경적으로 우리는 반석(그리스도)에서 조각된 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영적인 것으로, 죄악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서 어머니(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중생의 사역이 죄악된 육체나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자신의 사역에 참여시키셨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은 위(하늘)에서 오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따르는 자들아,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깎여 나온 반석과 너희가 파낸 구덩이를 돌아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돌아보라. 내가 그를 홀로 불러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1:1-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의 각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골방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일으켜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사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일으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회심 여부와 관계없이 친척이나 친구를 사역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악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했는데,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과 더욱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으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이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비록 물질적인 몸을 통해 표현되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남자들.

신자의 일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선물인 영생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엡 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축복)은 영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물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신성한 삶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권세 안에서 행했고, 약속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5)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분의 증보자만 계시다고 말함으로써, 은혜의 사역에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천사나 성인(예를 들어, 흔히 언급되는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행위는 신비주의적이며, 사실상 강령술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큰 반역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치유 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셨느니라 (엡 1:6).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은혜의 역사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중생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요한복음 2:11)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 사역자를 보내실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므로, 사탄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뢰성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가는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양과 소도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를 뒤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내다 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13-16)

그분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행사하신 권위는 그분의 주권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그분께서 그 성전의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성전 정화는 영적으로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주님께서 환전상들을 채찍질하신 사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 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자녀에게 하시는 권면을 잊어도다. 내 아들이, 주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시느니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받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5-8)

요한이 언급한 채찍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13절, 막 11장 15-17절, 누가복음 19장 45-46절의 공관복음서에서는 율법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채찍질(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은혜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점,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분은 주님의 집(우리 자신)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요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장사하는 집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양들(하나님의 일꾼들)은 장사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공짜이며, 요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분하시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설교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특별한 은혜와 진리의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은혜와 진리의 사역은 갈릴리 가나의 한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진리의 사역은 둘째 하늘에서 거행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곧 중생으로 끝맺을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의 복음을 썼고, 그의 이름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네 가고자 하는 곳으로 걸어갔으나 네가 늙으면 네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이 네 허리띠를 매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되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18-19).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능력과 업적의 한계에 다다르고, 행위에 대해 죽고,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아직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였을 때, 즉 젊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젊음의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이며, 오늘날 대다수의 신자들과 일부 사역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는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가 늙었을 때에"라는 말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늙고 성숙해졌을 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시작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누군가의 인도권을 잡으시면, 그분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혹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통해 은혜의 계시를 받고 육체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회개한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눅 22:31-32).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직 은혜와 진리의 계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회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은혜와 진리의 계시가 임하고 그 안에서 행하기 전까지는 아직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마태복음 18:3 참조). 그리고 당신은 인간적인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눅 5:4-5)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 사전에서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수고하다'는 코피아오(Kopiaio)인데, 피곤함을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노동을 하다, 고생하다,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도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들이 인간적인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수고하여 지쳤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밤'은 그들이 정죄 속에서 수고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직 빛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밤이나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 즉 낮에 행하며,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조건 없이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의 사역자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분은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토록 바라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시몬 베드로의 죄악된 삶을 비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8절에서 예수님께 자신(시몬)이 죄인이었으므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아무에게서도 낫지 않았다. 그때 그녀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니, 즉시 혈루증이 멈췄다. 예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다. 모두가 부인하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누군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인은 자기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졌고 어떻게 즉시 나았는지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딸아,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눅 8:43-48)

숫자 12는 신성한 권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 즉 재산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그녀는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믿고 돈을 썼던 의사들은 은혜의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앙을 공언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돈이나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가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전에 그녀의 마음속 간절한 소망을 채워주었습니다.

제 9 장

은혜를 거부하면 정죄를 받는다

정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크리시스(Krisis)'이며, 이는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재판소, 함축적으로는 정의(특히 신성한 율법)를 뜻합니다. 즉, 고발, 정죄, 저주, 심판을 의미합니다. 넬슨 신판 성경 사전(Nelson's New Illustrated Bible Dictionary)은 정죄란 어떤 사람이 유죄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죄는 사법 용어이며, 칭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정죄로 이어지는 것은 의의 산물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죄가 스며들고, 이는 곧바로 정죄로 이어지며, 결국 죄인을 죽음(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이유는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7-20)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정죄가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할지라도(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은혜를 베풀면 정죄가 임하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걷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죄를 피하기 위해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드시'에 밑줄을 쳤습니다.)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사역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정죄가 임할 것입니다.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당신 삶의 어둠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가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사람은 변화를 일으켜 빛으로 향하거나 새로운 움직임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죄가 임하고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만약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필리핀에서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나이지리아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을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된 나라들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진정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변화나 새로운 움직임이 있음을 알리시고, 모든 사람이 즉시 그 움직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개인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며, 그러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에는 빛이 없고, 어둠이 있습니다(즉, 정죄 아래 놓이게 되면 어둠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정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만약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정죄는 결정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결정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 체제에서 벗어나라는 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 중 일부가 세상 체제에서 분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의 백성들이 세상 체제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우리 중 일부가 순종한 이 요구는 우리에게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임하기를, 나오기를 거부한 자들뿐 아니라 온 세상과 그 체제에도 심판이 임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롬 5:18).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값없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치렀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정죄하는 직분이 영광이라면, 이를 행하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9)

예수님께서 오신 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의 선물 때문에 정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하는 모세의 율법조차 영광스럽다고 여겨진다면, 믿음과 고백의 순간에 죄인을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의의 산물인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은혜는 분명히 더 큰 영광을 가져다줄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틀림없이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욱 많아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느니라 (롬 5:20).

죄가 온 땅을 뒤덮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넘칩니다. 죄는 결코 은혜보다 더 많아질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정죄는 더욱 거세지고 죄는 더욱 만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남아 있지 않고, 심판과 맹렬한 진노를 두려워하며 기다릴 뿐이니, 그 진노가 대적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업신여기던 자는 두세 증인 앞에서 자비 없이 죽임을 당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긴 자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겠느냐?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가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믿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0:26-29, 38-39)

하나님과 함께 일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거세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두세 증인이 불리하게 증언하는 순간 자비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심판입니다. 마귀가 피고인을 재판하는 자들을 이용하여 벨리알의 자식들을 불러들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관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면 피고인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하기 전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세 사람입니다(요한일서 5:8 참조). 당신이 멸시한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에게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속죄를 이루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끌어당기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후포스텔로(Hupostello)이고, '되돌리다'라는 단어 역시 '끌어당기다'와 같은 뜻입니다. 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실 때, 그 말씀의 중요성과 그 어떤 말씀보다 더 큰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되돌리다'라는 단어는 숨기다, 꺾하다, 속이다, 감추다, 덮다, 배교를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의 역사와 당신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하게 되고, 진리를 숨기고 거짓을 꺾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속임수를 쓰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덮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큰 속임수가 자리 잡을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롬 8:1-2)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은혜의 확립은 율법의 정죄를 제거했지만, 사람에게 임했던 정죄 자체를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정죄의 조건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이 정죄를 피할 수 없었고 무력했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따른 정죄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정죄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죄 자체가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정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정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의 죄를 가릴 변명거리가 없도다 (요한복음 15:22).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일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게 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의 가운데 행할 은혜를 베푸시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 체제는 어둠과 악 속에서 계속 살아갈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자기 죄를 드러내고 심판받고 용서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다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곧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15:24-25).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행하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거나 미워한다면, 당신은 주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그들을 보내신 주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정죄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9:39)

예수님은 은혜의 일꾼으로서 의인과 죄인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오는 정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어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자들이지만 눈이 멀게 될 자들은, 기독교 세계와 세상 모두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거나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은 옛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은 아무런 변화가 필요 없다고, 혹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정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다. (롬 5:19)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23)

이 두 구절은 구원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 줄 많은 다른 구절들 중 일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심판과 정죄를 받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풍성한 선물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전히 정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7)

11).

보혜사, 곧 은혜의 영은 세상이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부터 보내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죄로 가득 찬 이 시스템을 이기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 또한 그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또한 세상의 의로움을 책망하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행해야 할 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율법에 명시된 정죄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진리의 영)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시스템의 통치자, 즉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 무저갱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불타는 불과 유향 못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똑같은 심판과 정죄를 가져올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애써야 합니까? 이것은 의심하는 도마들이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10 장

인간의 능력으로는 데이비드를 위해 해줄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인 다윗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과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남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법, 즉 성령과 교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과 통치 기간 동안 행한 대부분의 일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나왔는데,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었다.

그는 머리에 놋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쇠 오천 세겔이었다. 그는 다리에 놋쇠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했고, 어깨 사이에는 놋쇠 쇠고리를 둘렀다. 그의 창대는 베들의 북처럼 굽었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나 나갔다.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서 서서 따라갔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만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기고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게 하겠다." 블레셋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나와 싸울 사람을 한 명 보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은 낙담하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무엘상 17:4-11)

골리앗을 보면 사탄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듯이,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였습니다. 골리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낯쇠로 된 그의 모습은 그가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가 확정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낯쇠를 두른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적진에 있었기에 주 예수님처럼 부활할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 역시 인간적인 능력에 의존했기에 정죄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악마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악마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인간의 힘과 능력, 성취를 창조한 장본인이며, 이러한 것에 의존하는 자는 결국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가까이 와서 사십 일 동안이나 모습을 드러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을 위하여 이 볏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 개를 가져다가 진영으로 달려가라. 또 치즈 열 개를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네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맹세를 하도록 하라 (사무엘상 17:16-18).

하나님의 산수에서 40은 시련이나 환난을 의미하고, 10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40일 동안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새가 열 개의 빵과 열 개의 치즈로 상징되는 율법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어 적과 싸우도록 도왔지만, 율법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었고, 율법의 요구인 의로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당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이유와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가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라 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을 탐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와의 음성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전리품 중에서 양과 소, 곧 완전히 멸절시켜야 할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희생제보다 여호와와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반역은 마술의 죄와 같고, 고집은 불의와 우상숭배와 같으니라.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왕위에서 폐위시키셨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백성과 그들의 목소리가 두려워 여호와와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폐위시키셨다.

(사무엘상 15:17-26)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보내시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남자와 여자, 갓난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보낸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여 자기 뜻대로 하려 했고, 이로써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울이 양과 소와 다른 것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대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자신이 불순종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던 말인가? 이는 우리 대다수, 하나님의 종들 뿐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주님보다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답을 전했습니다. 순종이 제물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백만 원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제물을 주님께 바치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역을 마술과 같은 죄라고 말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자는 살려 두지 말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군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군대의 나머지 구성원들처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고, 아담이 죄를 짓고 온 창조물이 죄에 빠진 것과 같이 그들 모두 같은 사망 선고 아래 있었습니다. (참조)

로마서 5:12-19).

사울은 당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국 모두 영적으로 이미 그에게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처럼 죽음의 권세를 가진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원래 사울의 군대에 속하지 않았던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과 노력을 버려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자리에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무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갈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맹한 전사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조상의 양 떼를 치고 있었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갔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 짐승을 쳐서 어린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가 내게 대항하여 일어섰을 때, 나는 그의 수염을 붙잡아 쳐서 죽였습니다. 당신의 종은 사자와 곰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말했습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무엘상 17:32-37)

다윗이 여기서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이 일에 끌어들이셨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전체가 할례받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죄로 인해 그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언약의 수호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법칙을 아시기에, 그의 백성을 위한 확실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감을 주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 번 힘으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며, 골리앗의 손에서도 다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한 어린 소년의 담대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고, 낫쇠 투구를 씌우고, 사슬 갑옷을 입혔다. 다윗은 갑옷 위에 칼을 차고 나가려 했으나, 아직 칼의 성능을 시험해 보지 못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 갑옷들을 입고는 갈 수 없습니다. 아직 시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는 갑옷을 벗었다.

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시냇물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목자의 가방에 넣었다

다윗은 배낭에 무기를 차고 손에 물매를 든 채 블레셋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사무엘상 17:38-40). 사울은 다윗의 인간적인 능력을 믿었기에, 다윗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최악된 군복을 모두 입혔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음으로써 죄인인 사울과 그의 군대,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최악된 육신과 피를 입고 오셔서 먼저 인간과 하나 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14-16 참조) 다윗은 사울의 군복을 입었고, 그것을 벗어던짐으로써(즉, 죄와 죽음을 벗어던짐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머리에 놋 투구를 씌웠는데, 이는 다윗이 심판받은 사울과 그의 군대의 죄를 짊어졌음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속했다면 그 역시 최악에 몰들어 골리앗과 싸울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입으셨던 육신을 상징하는 갑옷을 벗어버리시고, 의를 상징하는 지팡이(권위)를 들고 은혜를 상징하는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택하셨습니다. 목자는 예수님을, 돌을 담았던 자루는 다윗의 그릇을 상징합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은혜를 통해 자신의 도구가 된 다윗 안에 자신의 율법을 세우셔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매끄러운 다섯 돌은 시냇물에서 나왔는데, 시냇물이라는 단어는 작은 개울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이 시냇물은 성령으로 볼 수 있으며,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가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그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니라 (사무엘상 17:44-45).

다윗은 자신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혜)으로 싸웠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자랑거리인 인간의 힘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음을 나타낸다.

이 모든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며,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무엘상 17:47)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 백성에게 칼과 창에 의지하는 것, 즉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을 만나러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은 급히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맞으려고 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혔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려가 블레셋 사람 위에 서서 칼을 칼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사무엘상 17:48-51).

다윗은 주머니(즉, 그릇) 안에 손을 넣어 돌(말씀)을 꺼내어 던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이는 다윗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계시와 하나가 되었기에, 마치 한 문장을 말하는 것과 같은 단 한 마디 말로 일치를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사용한 그 돌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으며, 다윗은 그분들과 하나였기에 신적인 권세로 싸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손에 칼을 들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골리앗을 죽이는 데 인간의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죽은 후 그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베었는데, 이는 적의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였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계획된 모든 것은, 당신이 은혜 안에서 행할 때,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어쩌면 그를 죽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행할 때, 싸움은 주님의 것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당신은 사탄의 하수인들이 당신에게 보내는 무기를 되돌려 보내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악한 행위를 회개할 때까지 당신 대신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 다윗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중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2) 그는 율법에 있는 정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3) 그는 육체에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습니다(그는 골리앗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4)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이를 상기시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존중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도록 했습니다.

(5) 그는 은혜와 진리의 계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셨기에 골리앗을 내리치실 때 다섯 개의 매끄러운 돌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돌 하나는 일치를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그 돌 하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즉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6)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권위로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첫 번째 아담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왕인 다윗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예수)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골리앗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대다수 신자들이 깨닫도록 더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즉,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나머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구실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33)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콘택트 렌즈

존 A. 다니엘 도움과 화해 사역
및 성경 훈련 대학 (HARMABITRAC WORLD OUTREACH)

주소: HOUSE 2, D CLOSE, 4TH
AVENUE, FESTAC
TOWN, LAGOS-NIGERIA
전화: 234 1 7212893,
7943450, 7224302, 7224303, 0803 3476693 웹사이트: www.harmabitrac.org

존 A. 다니엘 우편 사서함 537 새
틀라이트 타운 라고스-
나이지리아.

전화/팩스: 234 1 7943450 웹사이트:
www.harmabitrac.org

JOHN A. DANIEL POBOX
1415 UWANI ENUGU-
나이지리아.

판매용이 아닙니다

저자 소개

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 1989년에 소속된 종교 단체(세상이 조직한 종교 체계), 직장, 친척, 친구들과 모두 헤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당신의 권위(순종) 아래 두시고 나이지리아 에누구의 아크푸오가-에메네에 있는 광야형 농장 정착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했으며, 주님께서 많은 환난, 기근, 고난, 궁핍, 매질, 투옥, 철야, 금식, 위험 등을 통해 그의 육체를 불로 태우시며 그의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닦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1992년에 훈련을 마치고, 소속 교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말씀의 진리를 전할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 사용하시는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씀을 찾는 거룩한 이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 가정, 사역 단체, 개인 등을 찾아다니며 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귀한 선물인 메리 블레싱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메리 블레싱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큰 은총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티모시 존(주니어), 벤자민 사무엘, 데이비드 조셉이라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ABOUT THE AUTHOR

Born and bred in Enugu by Ibo parents, John A. Daniel was called and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in 1989. Just as Paul the Apostle was moved into the Arabian Desert, where he conferred not with flesh and blood, the author was also led into the Wilderness or Arabian Desert type farm settlement, in Akpuoga-Emene, Enugu, Nigeria, by the Lord Holy Spirit.

Having submitted to the authority channel of God, he was made to pass through a rigorous training as the Lord burned his flesh with fire, by grinding the Word of God in him until 1992 when his training ended.

He is a man under the authority of our Lord, and anointed with authority to minister end-time truth to the Body of Christ irrespective of your denomination.

He travels as directed by the Lord to minister in churches, homes, ministries, individuals, etc.

He is happily married to Mary Blessings, and has three sons, Timothy John(Jnr.), Benjamin Samuel, and David Joseph.